

윤보선 소식지

제 26호, 2022년 9월

해위 윤보선대통령 탄신 125주년 기념식

이정식 면담록 ⑤ 해방정국의 정치지도자

좌옹 윤치호 시리즈 ⑤ 윤치호와 독립협회 上

양재모 박사 “소의는 병, 중의는 사람 고치지만
대의는 나라를 고친다.”

(사)海葦尹潁善대통령기념사업회
윤보선민주주의연구원
Yun Posun Memorial Foundation
Yun Posun Institute for Democracy

이정식 면담록 ⑤ 해방정국의 정치지도자

〈편집자 주〉

이 글은 미국 펜실바니아대학 이정식교수가 1969년과 1970년에 윤보선 대통령을 면담한 기록을 김용호원장이 발췌 정리한 것이다. 작년에 작고하신 이교수께서 생전에 제자인 김원장에게 면담록(A4용지 83매)을 넘겨주었다. 이교수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

린다. 이 면담록을 모두 6회에 걸쳐 연재하고 있는데, 1회는 상해 독립운동 시기, 2회는 영국 에든버러대학 유학시절, 3회는 해방직후 정당 활동, 4회는 해방직후 윤보선과 이승만, 5회는 해방정국의 정치지도자, 6회는 1공화국 시기 등으로 나누었다.

이승만은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혁명투사

Q) 해방직후 인재들이 많았지요?

A)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지 않아 있었죠. 김구, 김규식, 여운형, 신익희, 조병옥 등등. 그 중에서 이승만박사가 가장 투철한 점이 많았다고 볼 수 있지. 이박사는 기동력이나 정치적 식견이 뛰어났지.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는 정치가라기보다는 혁명가지. 투지는 누구보다도 강하지.

Q) 그러면 정치가와 혁명가는 어떻게 구분하세요?

A) 무슨 확실한 구별이 있겠소만, 혁명가는 정치를 한다기보다 투쟁을 하는 것이지. 혁명이라는 것이 장외 싸움이고, 이박사는 젊어서부터 일생을 혁명투사로 투쟁을 해왔고, 그가 독립을 이루지는 못했어

도 혁명투사가 할 만한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굽히지 않고 싸워왔어. 그가 녹록한 이도 아니고, 재주가 없는 이도 아니고, 권모술수도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정권을 담당해 가지고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Q) 이박사의 성격은?

A) 그 성격이 누구하고 싸워야 배겨. 평화를 가져서는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정적하고 싸운다든지, 외국과 싸운다든지, 그럴 데가 없으면 가까운 친구라든지, 가까운 집안사람하고라도 싸워야 배기니까. 언제든지, 어디든지 교전상태는 계속을 해놔야지, 완전 평화라는 것은 못 배기는 사람이야. 정 싸울 데가 없으면 자기 부인하고라도 싸운다 그 말이야.

Q) 그것이 왜 그럴까요?

A) 천성이지.

Q)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옛날에 이박사가 YMCA 있을 때부터 아시지 않았어요? 또 상해시절에도 아셨고.... 그 때의 이박사는 어땠습니까?

A) YMCA에 총무로 있을 때에는 내가 잘 모르겠고. 하지만 그 때 조선의 유일한 박사거든. Ph.D란 말이야. 한국 사람으로 Ph.D를 처음 외국 가서 한 분이란 말이지. 그 때 Ph.D라는 것이 남의 나라에서는 별게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걸로 생각을 했던 말이야. 우리 어린 학생들은 Ph.D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Ph.D란 것은 철학박사다, 철학박사는 뭐든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했던 말이야. 그래서 오죽 명철했으면 미국 가서 철학박사가 됐겠느냐, 박사 중에도 어느 한 부분, 무슨 공학박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철학박사를 했겠느냐, 제일 어려운 것을 했다. 젊은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선전이 되고 그랬지요.

Q)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분에 대한 존경심은 상당했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세대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겠지요?

A) 그렇지요. 그랬는데 그가 함방시기에 한국에 와서 한 일년 있다가 여기서 힘을 못 썼지. 그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갔지. 하와이에서 일본 사람 외에 투쟁 상대가 누구냐 하면 박용만씨란 말이야. 둘이 서로 한국교포를 나누어가지고 참 치열한 싸움을 했거든. 물론 안창호씨

도 있지만, 그이는 워낙 떨어져 있어서 그건 원거리 싸움이 됐었지만, 단거리 싸움에서 듣건데, 서로 몽둥이로 두들기고 육탄전이 나고 참 치열한 뿔이 있었지.

또 이박사가 상해 와서 몰래 숨어 있는데 한번 오라고 해서 갔어. 상해 올 적에는 기대가 컸는데 대통령으로 상해 오니까 환영을 할 줄 알았는데 냉랭하고, 자기행동도 자유롭지 못하고 일본사람이 잡으려고 하니까, 거기 숨어 있으면서 뭘 하니까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런데 반대가 일부에서 일어났어. 한번은 나보고 하는 말이 젊은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가서 그들을 두들기라고.... 내가 그이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 자기가 전에 하와이에서 무식한 노동자들을 데리고 하던 방법을 여기 와서 해도 될 줄로 알고,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오. 여기 정치수준이 하와이에 이민 갔던 그분들을 상대로 하던 방법은 안 되는데, 인식이 참 부족하다고 느꼈어.

Q) 그런데 하와이에서 그런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상해 당시에서도 아셨나요?

A) 물론 알았지요. 국내로 자꾸 소문이 왔으니까. 이박사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Q) 그건 무엇을 통해서 아셨나요?

A) 그것은 왕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구전으로 소식을 들었지요.

Q) 그러니까 상해시절의 이박사를 평하신

다면?

A) 그 때 그가 와서 별로 활동이 없었어. 활동을 못했다고 할까, 안했다고나 할까.... 표면으로 나서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 조용히 있다가 간 셈이지. 또 이박사의 혁명투사적 성격을 보면 그이는 누구한테 지고는 못 배겨. 누구든지 자기를 한번 건드리면 말이지, 한번 때리면 말이지, 자기는 두 번 때려야 배기지. 한 번 맞고서 참는다든지, 용서한다든지 그건 못하지. 그것이 역시 그를 꾸준히 탈선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계속해 온 조건의 하나로 보지.

Q) 그분의 천성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 분의 자라난 환경을 보면 상당한 집안이지요? 이조판서인가요? 그 덕 삼촌께서?

A) 삼촌은 아니지. 그건 먼 친척이야. 그 할아버지 때인가, 아버지 때인가 황해도 평산으로 낙향을 했어. 낙향을 해서 그이는 평산서 나고 자랐거든. 그이가 양녕대군의 후손이지, 여기 영등포 나가면 양녕대군의 산소가 있어. 그래서 그 후손이 그 때 그곳 별당에 살았거든(지금은 그곳이 사유지가 됐어). 내가 이박사를 모시고 거기를 간 일이 있어. 그랬더니 전주 이씨, 양녕대군의 후손들이 모두 모여들었는데 수십 명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했었는데. 이박사의 친부인가가 평산에 낙향을 하고 있다가, 그 후에 서울에 올라왔어. 좌우

간 출세하려면 서울에 올라와야하니까. 이 박사도 올라와서 그 집에 있었거든. 그 집 아들하고 동갑이니까 같이 글을 읽었어.

Q) 그러니까 고향은 황해도가 아니시군요?

A) 그렇지. 본 고향은 황해도가 아니지.

김성수, 송진우, 여운형, 안재홍

Q) 선생께서 인촌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셨겠지요? 선생님은 인촌을 어떻게 보시는지?

A) 펍 위대한 사람으로 봅니다. 좌우간 일제 때 한국 사람으로 우리 동포를 위해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냐.... 물론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고, 전 재산을 다 희생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이 안엔 있어서 우리 동포를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업적이 제일 크지 않았나 생각해요. 또 그 사람의 일 하는 걸 보면 펍 평범한 사람이야. 누가 만날 적에 아! 그 사람 참 위대하다! 아까도 몽양 얘기를 했지마는 몽양은 얘기할 적에 고성으로 하고 웅변을 토하고 기운이 솟는 것 같고 그런데, 인촌은 착 가부러져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잘게 잔소리나 더러 하고 마는 이런 사람이거든. 그저 선비라고 할 수 있지. 위대한다든지 큰 지도자 역할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보아지거든.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해 놓은 것을 보거나 일한 것을 보면 누구보다도 많이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야. 실제 그 분은 이 민족에게 유리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나 혼자 인존을 부를 적에는 그 이는 평범한 위인이다. 평범하지만 위인이다.

Q) 어떤 분들은 인존 뒤에 송진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분도 있는데.....

A) 인존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송진우를 포섭을 안했고 또 인존이 송진우뿐만 아니라 그때 유력한 사람이면 포섭을 하려고 했으니까. 인존과 송진우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지. 그 사람들의 성격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인존이 주사(酒邪)가 있단 말이야. 술을 먹으면 주장을 해. 술을 먹고서는 송진우하고 싸움이 난단 말이야. 인존이 송진우하고 싸우면 송진우보고 그저 가진 욕을 다 하는데 송진우는 분해서 그저 두꺼비처럼 앉아가지고 곰처럼 들썩들썩하고..... 싸움할 적에 보면 두 사람의 다른 성격이 다 나타나는데..... 송진우란 사람은 일을 판단하는데 훌륭한 뜻이 있고, 또 뱃심이 좋은 사람이야. 해서 누구에게 녹록하게 복종을 하거나 하는 그런 무엇이 없단 말이야. 몽양 얘기도 했지만 일본 사람이 패망하게 되니까 송진우에게도 의논했거든. 송진우는 거부하고 몽양은 받아들였거든. 두 사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 드러난단 말이야.

Q) 그러니까 고하(古下)가 성격상 어떻게 돼서 일본인의 제안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

십니까?

A) 안 받은 게, 첫째 일본놈한테 그걸 인수받아가지고는 자기입장이 곤란하다 그렇게 보아지는 게고, 또 여기서 받는데는 받을 태세가 돼 있지 않다. 그렇게 봐지는 게고 좌우간 일본놈은 나가는 게니까 말이지. 이거 버리고 나가면 이건 우리 것이다. 이걸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받을 태세가 되어 있어야지 받기만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 받은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몽양은 그 성격과 같이 뒷생각보다도 우선 덥석 받은 것 아닌가....

Q) 그러니까 몽양은 쾌활한 반면에 충동적(impulsive)인 면이 있군요? 신중하니 생각하지 않고 덥석해 버리는.....

A) 그런 점이 많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받은 몽양은 실패했고 안 받은 고하는 뒷 결과로 봐서 옳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

Q) 그러니까 성격이 몽양같이 쾌활하고 활동적인 사람이 경솔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A) 글썄, 말하자면 신중한 면이 적다고 볼 수 있겠지요.

Q) 제가 해방기의 정치를 개인의 성격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요. 성격상 정권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것이 해방기에 정치를 좌우하지 않았어요?

A) 그때 누구든지 일본 놈이 불러서 우리 인제 망해서 물러가니 이거 맞으시오. 그럴 적에 그게 싫어서 안 받은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게요. 헌데 뒷일을 생각해 가지고 안 받는다는 건 꽤 어려운 일이야.

Q) 안재홍씨도 인텔리고, 문인이고 헌데 그분의 성격은 어떻게 보세요?

A) 문인인데, 나는 그 분을 평가하기가 꽤 거북한데, 그분이 출세를 좋아하는 분 아니요? 물론 해방 전에도 친일했다든지 그건 없어. 그래서 그 사람 명예가 좋은 편이지. 그런데 그것은 그래도 해방 후에 왔다 갔다 했거든. 건준에 여운형하고 하다가 떨어졌다가, 국민당에 뭐 했다가..... 또..... 그것은 정하면 철저하게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이거 좋을 것 같으면 이 걸하고 그러거든. 건준에도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저쪽에서 보면 배신한 셈이거든. 여운형 쪽에서 보면 말이야.

Q) 성격으로 보면 이박사는 해방 후에 나와서 뭉쳐라. 내 밑에 뭉쳐라 그랬는데....

A) 그랬지. 다른 사람 밑에서 뭉치면 안 되고 내 밑에서 뭉쳐라..... 이박사 단점이 또 거기에 있어. 그 독재자들이 다 그렇다고 평을 하는데 독재자의 성격인지는 모르지만 2인자(Second Man)을 싫어한다 그 말이야. 자기 부하가 되더라도 자기 후계자는 못되고 저 아래 삼류, 사류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바로 자기 밑에 들어오

는 건 이걸 안 되겠다.....

이박사가 정부를 조직할 적에 한민당을 배격했거든. 속으로는 상당히 시기하고 경계했거든. 저놈의 당이 잘못하면 나를 둘러먹을게다. 저걸 키워서는 안 된다..... 그래 그때 대한민국 돌아가는 걸 보면 인촌을 반드시 국무총리로 시켜야 되거든. 근데 영 안 시키고서 인촌보고 재무장관을 하라고 했거든. 인촌보고 돈 많은게 제일 중요할 것 아닌가. 미국서도 보면 돈 많은게 제일이고..... 그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리고 어쨌든지 한민당 사람을 쓴 것은 자기 사사정분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을 개인적으로 쓴 게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탈당을 강요도 하고 “너 어떻게 할테니 그만둬라” 이러기도 하고..... 당을 그만 안 둔 사람도 있고, 나는 당을 그만두지 않고서 한민당이 민주국민당 될 때까지 그대로 나왔오만은. 어쨌든 그이는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그러면서도 잘해야 자기 비서를 하면 했지, 2인자(Second man) 노릇을 한다는 것은 안 돼..... 인촌을 만일 국무총리로 앉혀놨다간 반드시 대통령에 자기와 경합이 되니까 이놈은 안 되겠다. 이범석씨도 그렇고.....

Q) 근데 김구씨의 성격을 제가 정치하고 연관을 시킬라고 하는데 참 그 분이 강직하고 우직하다고 할까 그런 것은 있지만 그것이 이박사나 여운형씨처럼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A) 난 김구씨는 잘 몰라. 김구씨는 내가 처음에 상해갔을 적에 그이가 경무국장이 됐을 적이야. 그러니까 그 뭐 국장급 아닌가. 우리도 대단한 것으로 안 봤거든. 자기도 지도자로 행세를 못했고. 그렇게 봤는데. 그 후에 꾸준히 뭘 해서 주식까지 되고 그랬지만은 그건 내가 해외 있는 동안이니까 잘 모르고. 여기 들어온 후에도 상해에서도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그리 친근한 사이도 못됐어. 그저 공적으로나 더러 만났지.

토지개혁

Q) 근데 그 후에 105인인가 몇 분이 한민당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좌우합작할 때인가.... 토지분할문제를 가지고 원세훈씨랑 처음에 탈당하지 않았어요?

A) 원세훈이가 탈당을 했던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지주출신이어서 토지개혁을 반대했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건 없고. 그것을 주로 누가 주장했냐 하면 인촌이 그 근본문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얘기한 걸로 아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민당에서 토지개혁을 반대했다더라 하는데 그런건 아니고.

Q) 그때 이쪽에서 유상매입 유상분배인가 그렇게 나왔지요?

A) 아마 그런 말을 했지요. 방법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참 공허한 생각이었어. 독립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새로 국가를 영위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이 나라의 빈한한 국민을 (그때는 민족자산이 토지니까) 건지는데 있어서는 비상한 방법을 써야겠다. 토지분배는 당연히 해야겠다. 그것이 지주에게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간에 그건 별 문제다. 또 지주에게 이것이 불리하지 않으면 더 좋지만 이것을 반대하고 안하고 할 문제는 아니다. 설혹 지주에게 불리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국가자산으로 이 나라 절대다수, 8~9할 이상의 사람들을 살리는데 있어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할 문제다. 그래 내 자신도 국회의원 입후보했을 때도 5.10 선거에 토지분배를 주장했다. 나도 한국에서는 대지주의 한 사람이지. 그렇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한 것이 과연 옳으냐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생각이 달라져. 같은 토지분배를 하더라도 어떻게 민족자본은 보전을 하고 육성을 해가면서 토지분배를 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가량 대만에서처럼 토지분배를 하고도 지주들은 또 그 자본을 다른데다 투자해서 지금 그것이 공업 방향으로 더러 진출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야. 그런 걸 볼 적에 대만에서는 합리적으로 하고 우리는 불합리하게 돼서. 사실 소작한데 논을 줬다고 해도 그것을

지금 와서는 큰 성공이라고 볼 수 없고 이 나라 민족자본인 지주는 완전히 급락해버렸다, 그래 그 성과가 지금 자본이 형성됐다는 것은 완전히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지금 축재가 돼 가지고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것을 볼 적에 내가 그때 그것은 실제 보면 공허한 생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우리가 독립이 돼서 잘 산다는데 어떤 일 개인의 재산이 없어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 말이야. 그런 생각은 조금도 꿈에도 안했고, 나 개인으로 말하면 그렇소. 해방 후에 정치에 관계를 해서 내 재산을 거의 다 포기하다시피 했어. 다른 사람들은 토지 개혁된다 해서 땅을 싸게라도 팔고 자꾸 막 팔아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하고 이런 걸 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때까지도 내 스스로 생각할 적에 자, 나보다 재정적으로 못한 사람, 먹고 살 것도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 또 관심이 거기에도 가지 않고. 그건 내가 그 재산을 모았으면 애착심이 달랐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이것은 조부한테 거저 받은 거니까 생각이 딱 가볍게 됐던 모양이야. 그런 점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지 내 양심에 부끄럽다 그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방치를 해버렸어.

Q) 그러니까 그것이 좌경은 아니지만 좀 더 진보적 이념을 가진 것으로 보면 될까요?

A) 해방 전에는 좌경이고 아니고 상관없어. 그저 독립이라는 생각, 일본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면 다 동지고, 애국자로 생각을 해서 그 구별은 없었으니까. 우리가 상해 있을 적에도 그때 공산주의 연구하는 클럽이 있었어.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가지고 책을 읽고 와서 발표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비판(criticize)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우리 독립운동하고 유조(油槽)하면 됐지, 상치(相馳)나 배치(背馳)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이정식 (李庭植) (1931~2021)

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명예교수, 경희대 석좌교수

주요저서: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대한민국의 기원』, 『이승만의 구한말 개혁운동』,

『여운형: 시대와 사상을 초월한 융화주의자』,

『이정식 자서전: 만주벌판의 소년 가장, 아이비리그 교수 되다』,

『Park Chung-Hee: From Poverty to Power』

